

발행인 칼럼

하나님의 휴가(休暇)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神은 人間の 땅을 떠나라’는 박찬홍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는 지극히 무엄(無嚴)한 외침은 근자(近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렇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장엄(莊嚴)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며,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타락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데 기인(基因)한다.

더운 여름이다. 잠시라도 휴가 가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섭섭하지만 우리가 몇 날을, 아니 더 오래 휴가 간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TGC,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할까?

나는 16살 때에 동네에 있는 작은 안경점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때 내 시급은 6.5달러였다.

그러나 나의 경력, 경험, 교육이 늘어나면서, 또한 기쁨값 외에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벧후 1:3)를 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 또는 풍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잠언에는 단 하나의 기도만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

하나님께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력, 경험, 교육이 늘어나면서, 또한 기쁨값 외에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모든 필

내핍의 경제를 넘어서서 점점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임금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 마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만 하는가? 다음에 제시되는 실제적인 문



성경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잠 30:7-9)라는 기도이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라는 관점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샘 스톰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

풍요와 필요

요를 구하라는 것이었다(빌 4:6).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만족은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지금 너무 부족한 것보다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세계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당신의 임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계 경제는

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라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서 인상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상을 요구하는가? 당신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인상을 요구하는가?

2.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고려하라

교회 사역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직종에서 그들이 벌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원서 교부 및 접수: 2023년 9월 1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입학상담 문의: 646-708-1011

2023 뉴욕선교대회

THE MISSION CONFERENCE OF NEW YORK

"복음으로 비상하라"
Soar By The Gospel

7.20(목) - 22(토)

집회 일정	강사
7/20 (목) 오후 7:30	류응렬 목사
7/21 (금) 오전 10:00 7/21 (금) 오후 7:30	류응렬 목사
7/22 (토) 오전 10:00	Sunny Mun 선교사

대회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회장 이준성 목사



김재열 목사



김경열 목사

강사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Sunny Mun 선교사

미주 비라카미
세계선교 본부장

HAPPY COFFEE SCHOOL

행복한 커피학교
손문성 선교사 협찬

할렐루야 2023

뉴욕 복음화 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교회여, 일어나라!"

Let the Church Arise!

7.28(금)-30(주일)

금, 토 7:30 PM, 주일 5:00 PM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
시애틀교회 연합회 회장 3회 역임

대회장

준비위원장

부대회장



회장 이준성 목사



박태규 목사

부회장: 김일태
이사장: 조동현 장로

할렐루야 복음화 어린이 대회



"JESUS is Calling
the Next Generation"

장소: 교육관 1층
강사: Grace Rim 목사
어린이양육교회 2세 목사
RCA 교단 목사, 유년부 분과위원장

교역자 및 목회자 세미나

- 일시: 7월 31일(월), 오전 10시
- 장소: 뉴욕선한목자 교회 (박준열 목사 시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website: www.nyckcg.org

장소 하크네시아 교회(전광성 목사 시무)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2

- 문의
- 총무 유승례 목사 Tel: 845-848-2013
 - 서기 김홍배 목사 Tel: 917-232-8401



- 장소: 노던 한양마트 앞
- 시간: 집회시간 1시간 전